주일예배 노량진(오전) 6시 / 오전(1부) 7시 / 오전(2부) 10시 / 오후(3부) 2시 /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 2부(오전) 10시 / 3부(오후) 2시 /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7월 17일 (제1158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도원에 있는 정해광 장로님의 딸 기쁨이는 예비 신부다. 10월에 결혼할 예정이다. 기쁨이는 요즘 한창 분주하다. 결혼 준비하느라 그러기도 하지만, 예비신랑의 사업을 돕고 있기에 그렇다.

나는 기쁨이를 만나, "그렇게 좋으냐? 밤낮으로 신랑을 돕느라 힘들 텐데 괜찮니?" 했더니, 기쁨이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감사하죠."라고 한다. 기쁨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뛰는 것이 아니란 걸 잘 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다.

우리 기도원에도 기쁨이와 같은 주의 종들, 성도들, 그리고 직원들이 있다. 오직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땡볕도 마다하지 않고, 험한 일과 힘든 일을 자원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기도원 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월 말에 있을 수련회와 8월에 있을 하계산상집회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들은 말한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면 힘든 줄 모른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봉사한 것이 마치 단 며칠 봉사한 것처럼 느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창29:20)이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고생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사랑함 때문이 아닌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연고로 위험한 일도 감수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넉넉히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는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는 상황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아서다. 사랑이 식어서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경고문을 들려주고 싶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4~5).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당부하신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가장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자다

지금 전라남도 장성의 우리 예루살렘기도원은 총회장 목사님의 진두지휘 아래 청소년연합수련회와 하계산상집회를 준비하는 기도원 식구들, 주의 종들 및 신학생들의 땀과 열정으로 가득하다. 오치환 장로의 유지였던 야외식당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새로 매입한 계곡 출입구 데코레이션 및 정비, 숙소 리모델링, 텐트촌, 커피숍, 대성전 LED 설치 등, 여러 가지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몇 주 남지 않은 기간에 과연 이를 다 마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동안 목사님의 진두지휘 아래 우리 교단이 이루어낸 저력과 노하우가 있기에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인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식사 시간도 넘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기도원을 찾을 성도들을 위한 준비이기에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지금 기도원에서는 야외식당, 커피숍, 숙소 리모델링 등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목사님은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다. 느헤미야가 훼파된 예루살렘성을 52일 만에 재건한 사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든 채 싸우며 건설한 느헤미야의 역사를 목사님은 항상 영적 전쟁의 기본자세로 말씀하시곤 한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작정한 자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가 없는 미래는 재앙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난 목회 38년 동안 차선을 모르고 오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관해왔습니다. 차선책을 생각하는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사 준비한 자만이 여유가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가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런 사고 없이 순적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성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왕과 왕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도왔습니다. 성 재건에 필요한 물자는 물론 비자를 내주며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중에 닥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훼방자들도 있었고, 귀족 그룹의 방관자들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속전속결의 자세로 적들이 미처 공격할 틈을 갖지 못하도록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든 채 밤에 횃불을 밝혀가며 공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미쳐 예상치 못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성 재건이란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1차에 걸쳐 진행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돌아봅시다.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할 때는 성회 전날 비가 쏟아지는 속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청광장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전에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과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기도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은 청소년연합수련회와 하계산상집회를 위한 준비입니다. 역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기에 모두가 기쁨으로, 그날의 상으로 알고 열정을 다해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천국의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은택 목사**

The 24th UNITED YOUTH CAMP
중고등부 7월 25일(월)~27일(수), 청년대학부 7월 28일(목)~30일(토)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4:34~41)

거센 파도도 선장의 마음을 읽는다

여러분, 개장수 앞에서 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맹견이라도 개장수 앞에서는 바들바들 떱니다. 왜 그러냐면, 개가 개장수의 마음을 읽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잡아가서 죽일 사람이란 걸 느끼기에 사나운 개도 개장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반대로 개 앞에서 겁내면요? 개가 압니다. 그래서 짖어대고 심지어 물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가 딱 이렇습니다. 개가 '으르렁'하고 겁을 주는 것처럼, 마귀는 잔뜩 겁을 줍니다. 그때 떨면 마귀가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는 꽉 물어버립니다. 그러나 개 앞의 개장수처럼 딱 버티면 마귀가 '안 되는구나.' 하고 떠나갑니다.

2003년 키르기스스탄 집회에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한 당국자의 고발로 인해 저는 KGB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 삶과 신앙에 암이다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춘다는 바로 그곳에 감금되었습니다. 슬라바 목사와 저는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한참을 대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했습니다. 아니 제가 귀신을 쫓는 자인데, 귀신이 '으르렁'거린다고 겁내겠습니까? 되레 귀신이 제 앞에서 떨어야지요. 슬라바 목사와 저는 KGB요원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할렐루야!"하고 악수를 청했고, 슬라바 목사는 러시아어로, "이 목사님은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다. 이 목사님께 손대면 세계가 당신 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지요. "아~, 이 사람들은 겁줘도 안 통하는구나." 하고 떠나자 우리는 모든 혐의를 벗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해외집회에 가면 거의 야외집회인 경우가 많은데,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귀란 놈이 으르렁거리는 거지요. 그때 제가 요동합디까? 현지 목사들을 비롯한 집회 스태프들은 우산을 쓰기도 하고, 비를 피해서 단 아래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난리를 쳐도 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합니다. 마이크가 나가면 육성으로 하고, 라이트가 나가면 컴컴한 그대로, 사람들이 없어도 몇몇 사람을 놓고도 그대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악한 마귀란 놈이 제 맘을 떠보고 흔들어 보지만 그놈의 장난에 흔들릴 제가 아니지요. 그랬더니 비가 오다가 멈추고,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 다 보셨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일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골리앗이 나타나자 다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하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마귀도 알았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이놈은 예사 놈이 아니구나.' 해서 장난을 못 쳤기에 물맷돌이 아닌 정확히 골리앗을 맞춘 겁니다.

지난주 기도원에 있는데, 서울 성도가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만 천국에 가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이제 겨우 60대 초반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제 60대가 천국에 갈 생각을 하냐고 호통을 친 후에 전화를 받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확한 의사를 밝히라고 해라. 이대로 천국에 갈 거냐? 아니면 더 살고 싶냐?"라고 했더니, 남편 말이 "이대로 살 거면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낫는다면 더 살겠다는 거지?"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도해주며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혼자 화장실도 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그 남편에게 정확한 의사를 타진했느냐 하면, 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마음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다면 데리고 가시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살고 있다고요. 긍정이란 놈과 부정이라는 놈 두 마리가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세하냐? 그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먹이를 더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팔자야.'라며 부정이란 놈에게 먹이를 자주 주면 그놈이 세져서 긍정을 누르고 부정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잘 될 거야.' 하는 자는 긍정이란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셈이어서 그것이 더 세져 내 삶을 긍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듭니다.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 마귀의 궤계에 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지요.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그건 마치 총을 들고 멧돼지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에프킬러를 들고 모기에 물릴까 걱정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대서 배가 출렁이고 배에 물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며 수선을 떱니다. 그러자 일어나신 주님이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막4:40).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마귀에게 빌미만 주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해야지요. 명령만 하면 예수님처럼 파도와 바람도 잠잠케 되는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아래 것들이 다 복종하는데 허둥대며 난리를 쳐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마귀란 놈이, "이놈은 조금만 더 흔들면 넘어져."라고 판단하고 더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라."하고 명하면 "아이구야~"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4:7).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생각이 결과를 몰고 다닌다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듯, 우리 삶에도 늘 파도가 밀려옵니다.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절대 바다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오더라도 '나는 가리라' 하면 파도도 선장의 마음을 알고 잠잠케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면 평생 장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제거하면 됩니다. 파도가 무서워서 평생 배를 항구에 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한다니 말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마귀는 떠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기도는 전부입니다.

7월 말에 청소년연합수련회가 있고, 8월에 하계산상집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참석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 문제를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불경기(stagnatio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사태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보이면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을 진압하는 방향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1979년 말 오일쇼크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폴 볼커(Paul A. Volcker)는 인플레이션을 진압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이 10% 선일 때 기준금리를 20% 선까지 단기간에 상향 조정하여 1/30 수준까지 하락했던 달러 가치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단시간에 경기가 침체되자 부동산 등 각종 자산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되고 기업들까지 줄도산하기 시작했으며,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단기적으로 엄청난 불황이 초래되었고, 최초 3~4년간 거의 전 미국민들은 각기삭골(刻肌削骨)의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안정을 찾기 시작하여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대봉쇄에 대응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 지출 확대와 양적 완화를 시행하여 상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이상 기후 등 여러 요인으로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하는 동시에 물가상승률까지 빠르게 증가하였고, 1/4 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원유, 밀 등의 핵심 원자재에 대한 시장가격이 급상승했을 뿐 아니라 유례없는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85년부터 2018년까지 최소 3분기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의 통화 긴축정책을 사용한 35개 국가들 중 50% 정도는 경기의 경착륙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 핵심 요인은 금융구조의 취약성, 특히 고평가된 자산가치와 이에 대응하는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에 기인합니다.

또한 6월 발표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 대비 동일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인 2%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 자명하지만, 대한민국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그리고 2위의 기업부채 규모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남북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전 교단의 구성원들에게 분골쇄신의 자세로 기도할 것을 주문하시고, 그날이 실현될 때까지 집회를 지속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불가항력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인도 확신합니다.

임윤석

:: 오늘의 메시지 ::

성장할 기회에 감사하자

요즘 네 살배기 조카아이는 며칠간 장염으로 아팠다. 이제 막 태어난 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듯했다. 7개월 된 동생이 싫어서 딱히 때리거나 괴롭히지는 않는다. 오히려 분유를 먹여보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한다. 그 모습이 예뻐서 사진에 담아두고 싶을 정도다. 그럼에도 물건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운 듯했다.

나에게도 동생이라는 존재만으로 불편했던 때가 있었다. 엄마가 세상 전부였던 오래전 어린아이 시절이었다. 그래서인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조카가 안쓰럽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지만 그 시간 동안 겪어갈 네 살 아이에게는 엄청난 일이다. 물론 겪으면서 사랑스런 내 조카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 번씩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래전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머릿속이 착각을 하는지 그리운 추억으로 다가온다. 그때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세상에나 그리워하다니…. 시간이 이렇게 만든 것일까? 조금은 그때보다 성장한 나는 그 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되었노라 스스로에게 말한다.

물론 아직 나는 배우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해본다. 지금도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자. 아마도 시간이 더 지나면 또 이날을 추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나에게 말해본다. 주어진 상황들에 감사하자.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섬세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자.

이인영 집사
ccbgrace@naver.com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나의 아버지, 김보석 목사

어린 시절, 매주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효자셨지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 편에 서자 불효자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제사 안 지낼 거면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는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대학, 고등학교, 대형학원을 운영하셨던 아버지는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뒤 어머니를 따라 새벽기도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자라던 중에 우연히 총회장 목사님의 집회 광고를 보시고 그곳에 참석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건은, 아버지의 운명이 바뀌는 계기이자 집안에서 멸시 천대받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호적에서 파내고 재산을 몰수하겠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줄 테니 예수를 적당히만 믿어라.'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대구와 경상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재산을 쏟아부으셨고, 안팎의 비난 속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뿐이셨던 아버지는 결국 목사가 되셨고,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느라 거의 뵐 수 없었던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천국에서 왕권을 누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꿈에서 보고 깨달았지요. 남 부러울 것 없으셨던 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험난한 길을 택하셨던 이유는 바로 고난의 길 끝에 빛나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천하신 지 21주기를 맞아 아버지를 한 마디로 정의해보니,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신 아버지. 사람의 비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셨던 아버지. 성도님들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셨던 아버지.

이 글을 통해 존경하는 아버지를 기리며 그분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김진실 사모
pupu519@naver.com

:: 내가 매일 기쁘게 ::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요즘은 한창 논문을 쓰는 중이다. 많은 연구 자료를 읽다 보면 '참, 글 잘 적는다.'라는 생각과 함께 부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다. 이것과 별개로 남편과 함께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였다. 우리 또래의 다른 부부들은 건강미가 흐르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큰 결심을 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부러운 게 너무 많고 나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알고 보니 나는 열등감 덩어리였다. 내가 열등감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은 날, 오랜 시간을 울며 흥얼거렸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날 이후, 나는 '열등감 덩어리'들을 잘라내기로 마음먹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운동하고, 식단 조절도 철저히 하려고 수시로 칼로리를 계산하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11:01). 열등감을 잘라내겠다는 나의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였다. 더 이상 부러움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나의 최선과 노력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결국은 나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라헬의 언니 레아는 평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야곱이 원했던 아내가 아니었기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동생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오롯이 의탁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중 넷째인 유다의 이름은 주를 찬송하겠다는 의미이며,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야 예수가 태어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브닌나에 대한 부러움을 기도로 해결하였다. 성경 속 그녀들은 부러움에 무너지지 않았다. 당당하게 맞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나도 그녀들처럼, 부러움에 주저앉기보다는 열등감 덩어리를 잘라낼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믿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가 되며, 가치는 운명이 된다.'는 말처럼, 내 믿음이 내 운명을 바꿀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훈지 집사

:: 부르심의 소망 ::

작전명령 174호

"낙동강 방어선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북한군의 거점인 동해안 영덕지구로 상륙하여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한국군의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

육군본부 작전 제174호,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만 작전이었습니다.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고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인천상륙작전 하루 전인 1950년 9월 14일, 772명의 학도병들이 부산항에 모였습니다. 배 한 척은 그들과 대위 1명을 태우고 비밀 임무를 위해 은밀히 출항했습니다. 배 안에서 서로의 나이를 물어보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는 이 천진난만한 학도병들은 고작 10대의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입대하여 겨우 2주 정도 훈련을 받고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배는 어느덧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도착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빠르고 은밀하게 상륙해 급습해야 할 상황에서 태풍이 몰아쳐 접안에 실패합니다. 이때를 놓칠 리 없는 북한군이 배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배는 좌초되고 장사상륙작전은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학도병들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해 상륙을 시도하는 어린 학도병들은 해변에 도착하기도 전에 파도에 휩쓸리거나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겨우 해변에 도착했지만 숨을 곳 하나 없는 해변에서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도병들은 필사적으로 모래를 파서 겨우 몸을 숨겼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상륙에 성공한 학도병들은 북한군과 악착같이 전투를 벌입니다. 같은 날 인천상륙작전이 실행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그리고 전혀 가망 없어 보였던 이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고지를 탈환한 후, 7번 국도의 주요 다리를 폭파하고 북한군 보급로를 차단하여 북한군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작전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학도병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그들에게 지급된 식량은 건빵 한 봉지와 미숫가루 3봉지였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반격을 위해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74호 작전은 성공했기에 이제는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타고 온 배는 좌초되었고 통신장비는 모두 먹통이 되어 돌아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부대장 이명흠 대위는 적진을 뚫고 남하해서 아군에 합류하자며 대원들을 이끌었습니다. 남하하던 도중 극적으로 미군 헬기를 만나고 동해안의 UN군 함정에 구조요청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구조선을 처음 상륙했던 장사리 해변으로 보내겠다고 하여, 살아남은 학도병들은 북한군이 다시 점령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구조선이 도착했지만 북한군의 총격으로 접안하지 못하고 그대로 철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구명정에 타지 못한 학도병들은 구조선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계속되는 북한군의 공격으로 총에 맞은 학도병들이 속출했지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구조선 정중앙에 박격포가 떨어지며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학도병들을 다 태우기도 전에 서둘러 배를 돌리고 맙니다.

해변과 바다 위에 남겨진 수십 명의 학도병들….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단 하나의 목숨을 내놓은 청춘들,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 772명의 학도병들의 희생으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엄청난 기적 뒤에 숨겨진, 이름조차 알 길 없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마주하니 마음이 미어집니다. 6 · 25 참전용사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는 11번째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를 열었습니다. 자녀세대에게 더 이상 전쟁의 참혹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세대의 애끓는 간절함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에 헌신해주신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든 헌신과 희생을 주춧돌 삼아, 통일 한국에서 강하고 용맹을 발하는 우리 자녀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단11:32).

박영신
rubyday0@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최고의 연수기관

얼마 전, 한 단체의 워크샵 일정이 생겨 경기도 일대의 펜션, 연수원 및 수련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00여 군데가 넘게 장소를 알아보다 보니 우리 예수중심교회의 보물창고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이 얼마나 최상의 서비스와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2만여 평이 넘는 드넓은 공간에 위치한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은 양옆에 산들로 둘러싸여 쾌적한 공기를 자랑합니다. 기도원 근처에는 에메랄드빛 장성호가 있고 기도의 동산을 따라 맑은 개울이 흐릅니다. 대성전은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춘 최적의 장소에 자리 잡고 있으며 햇빛을 잘 받는 동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는 3천여 명의 수련생들이 한 번에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고가 높으며 기둥도 없습니다. 대성전에 최근 LED를 설치하여 수련생들의 예배 집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텔 숙소는 어느 5성급 호텔 부럽지 않게 방역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또 방마다 마운틴 뷰를 볼 수 있어 어느 여행지보다 훌륭합니다. 꽤 큰 규모의 야외 수영장은 수련생들의 더위를 식히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최근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야외식당을 새로 정비하셨는데, 매끼 경치 좋은 야외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니 음식이 꿀맛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중앙공원의 카페는 유럽의 공원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에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훈련시켜주니 2박 3일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면서 수련회비는 무료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이번 제2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중고등부는 7월 25~27일이고, 대학청년부는 28~30일입니다.

송현혜 생도

하계산상집회 8월1일(월)~4일(목), 8월(월)~11일(목)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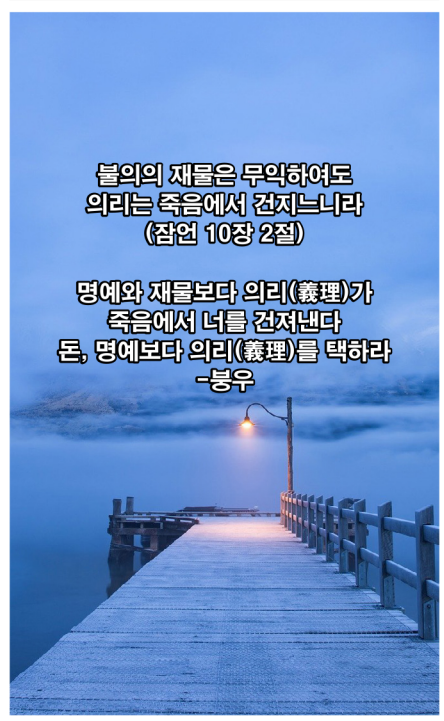
:: 글꾼의 신앙 ::

하나님의 성전

1989년도 도봉 기도처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의정부, 동두천 일대가 한 기도처로 김영숙 전도사님이 담임이었다. 기도처는 지하 20평 정도였고 사방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었다.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를 내는 기도처였는데 너무나 허름했고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났었다. 전도사님께 '기도처 옮깁시다. 성도들에게 기도처 이전 헌금하라 하고 나머지 필요한 돈은 내가 다 할게요.' 전도사님은 나의 말을 믿고 신바람 나서 지하 40평,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하는 장소를 찾았다. 강북교구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처 이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내가 100만원, 내 아내가 30만원, 작정 헌금을 비롯하여 합계 410만원이었다. 보증금 400만원이 있었으니 나머지 1,190만원을 내가 말한 대로 헌금했다.

기도처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20평에서 40평으로 넓어지니 예배하는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다. 이에 뒤질세라 은평 기도처가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초석 목사님을 모시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때만 해도 이초석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려고 경쟁하다시피 했었다. 그러나 이초석 목사님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외 집회로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었다. 당시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었다. 결국 우리 기도처는 목사님을 모시지 못했고 가깝고도 먼 분이라는 말로 위안을 삼았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배하는 장소를 성전으로 여겼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만큼 기도처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16).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다.

나는 쉬는 날이면 전도사님을 찾아갔었다. 어느 날 전도사님과 함께 교구 심방을 가게 되었다. 동두천 시장에 다닥다닥 붙은 옷 가게에서 예배를 시작으로 의정부, 노원구, 도봉구 여러 곳에서 구역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참 성전이다.

이승효 목사